

People & Life



“최고의 옷, 최고의 사람에게 만들어 주고파”

40년 맞춤양복 외길 이승은씨 양복의 날 ‘금익장’

“같은 업계 사람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떨겠어요. 40여년 ‘양복인생’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 습니다”

양복 명인 이승은(65·정일라사)씨는 최근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주최로 열린 제43회 ‘양복의 날’ 기념식에서 맞춤양복업계 대상인 ‘금익장’을 수상했다. 금익장은 1년에 1번, 1명에게 수여되며 전국 양복전문인 중 수십 년의 경력과 협회에 대한 공로, 사회 공헌에 헌신한 이를 골라 수여하는 양복업계 최고의 상이다. 광주에서는 10년 만에 나왔다.

이씨가 양복 일에 뛰어든 것은 20살 무렵. 당시 호황을 누렸던 맞춤양복이 젊은 이씨의 눈을 사로잡았고, 평생직업으로 선택했다. 9년여의 봉제사 생활을 거쳐 1972년 지금의 광주시 동구 충장로 파출소 근처에 정일라사

를 냈다. 이씨는 그동안 대한양복재단연구회 제도경기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974년에는 대한상공조합 전국신사복기술경기대회 특선, 2008년에는 한국맞춤양복기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다. 2009년에는 이씨가 지도한 유병순(55)씨가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양복 직종에서 광주·전남지역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기성복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맞춤양복시장은 줄기 시작했고, 한때 광주에만 300여곳이던 맞춤양복점은 지금 25곳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양복을 제대로 배우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하데, 그 10년이 흐른 후 돈벌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찾기도, 지도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씨가 양복전문

업에 희망을 거는 것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맞춤양복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다. 이른바 ‘핏(Fit)’을 중시하는 손님이 점차 늘어나면서 숙련도와 기술을 내세우는 맞춤양복점으로 손님의 발길이 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 60%가 표준체형이 아니 예요. 맞춤양복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과 색을 골라 입을 수 있고 몸에 달라붙을 수록 멋이 나기 때문에 양복을 평생복으로 입는 사람에겐 맞춤양복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고 영예 금익장을 수상한 이씨에게 남은 바램은 지역의 명사에게 직접 만든 양복을 입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도 국내외 맞춤양복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씨는 지역 인사들이 광주에서 만든 맞춤양복을 입고 광주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보고 싶다.

“좋은 솜씨가 없어지기 전에 최고의 옷을 최고의 사람에게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연아 올 봄 교생 선생님이 된다



‘피겨 여왕’ 김연아(22·고려대)가 올 봄에 교생 선생님이 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김연아가 5월 중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올해 고려대 체육교육학과 4학년이 되는 김연아는 졸업하기 전에 한 차례 4주 동안의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을 나갈 학교는 학생이 직접 고를 수도 있고, 대학 쪽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8명 4급 특별승진



“새농협 출범에 발맞춰 영농현장에서 경제사업 발전과 ‘관내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전국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유공직원 특별승진 심사를 실시, 전남농협 소속 직원 8명에게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활성화 부문 장성 삼계농협 김순민 대리 등 8명이 4급(과장)으로 특별승진했다. /송기화기자 song@

“우리는 군인 가족”

부친 박두봉씨 이어 1남3녀 전·현직 복무

6명의 가족 중 한때 어머니만 빼고 5명이 군복을 입었던 군인 가족이 있어 눈길을 끈다.

6일 육군에 따르면 박두봉(59·통신학교 ROC 45기) 예비역 육군 원사의 아들과 큰딸, 둘째딸은 현역 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셋째딸은 예비역 대위이다. 한가족이 모두 군복을 입은 가정은 흔치 않다.

아들 박종민(23·학사56기) 중위(진급예정)는 조선대 07학번으로 금속재료공학 학과를 나와 작년 10월 병기 장교로 임관했다. 육군2군수지원사령부 56탄약대대에 서 작년 10월부터 탄약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녀 박정자(35·여군48기) 대위는 육군2포병여단 인사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대 행정학과 96학번인 박 대위는 2003년 장교로 임관했다. 수도기계화사단, 37사단, 육군훈련소, 27사단 인사장교를 지냈다.

둘째딸 박정숙(33·여군47기) 대위는 조선대 전산통계학과 98학번으로 언니보다 한 해 빠른 2002년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23사단 소대장과 31사단 중대장, 3사단학교 훈육장교를 거쳐 학생군사학교 교육단 훈육장교로 근무 중이다.

셋째딸 박경숙(30·해병대 사후100기) 해병대 예비역 대위는 전남대 경영학과 00학번으로 2005년 통신장교로 임관했다. 해병대2사단 통신중대장으로 근무한 후



아내를 제외한 다섯 식구가 모두 군복을 입은 박두봉 예비역 육군 원사의 가족.

2010년 전역했다.

이들의 아버지 박 예비역 원사는 1974년부터 34년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11공수여단 행정보급관, 주민원사를 지내고 2008년 정년 퇴임했다. 박 예비역 원사와 셋째딸이 전역하기 전까지 아내 고순덕(54) 씨를 제외하고 모두 군복을 입은 것이다.

박 예비역 원사는 “솔직히 군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군인의 길을 가라고 권유하지는 않았다”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군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법과 규정, 원칙을 숭순수범해 지켜야 상명하복의 리더십이 생긴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내인 박 중위는 “한평생 군인의 길을 가장 명예롭게 여긴 아버지와 자랑스러운 누나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군 생활 할 것입니다”고 포부를 다졌다. /연합뉴스

백양사 방장 지중 스님 입적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지중 스님이 7일 오전 8시 44분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74세.

지중 스님은 그동안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22년 장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 때 부모를 여의고 백양사 산문에 들어섰다.

1942년 백양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지중스님은 평생 청빈하게 살았던 은사 만암 스님을 시봉했으며 완도 신종사, 부산 개암사, 백양사, 불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또한 학교법인 정광학원의 제8대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중스님은 2004년 4월 서울, 만암 스님에 이어 백양사 3대 방장에 오른 뒤 후학들을 이끌어 왔다.

지중스님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11일 오전 백양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부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인사

-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 ▲기획관리실 전략경영팀장 유태봉 ▲"경영지원팀장 이영섭 ▲재무자재팀장 김훈배 ▲판매사업실 수요관리팀장 김흥택 ▲영업총괄팀장 김한복 ▲"배전총괄팀장 신현호 ▲"요급관리팀장 김재관 ▲"배전운영팀장 유두진 ▲"IT지원팀장 박종욱 ▲"IT지원팀장 부장 손창우 ▲송전전사업실 송전계통팀장 이근업 ▲"송전운영팀장 여태선 ▲"변전운영팀장 권희섭 ▲"설비운영팀장 이병화 ▲서광주지사 고객지원팀장 백영기 ▲"전력공급팀장 정재성 ▲"요급관리팀장 정영석 ▲"배전운영팀장 최수영 ▲여수지사 고객지원팀장 김명환 ▲"요급관리팀장 박영일 ▲"산단지원팀장 이정태 ▲광산지사 고객지원팀장 문형식 ▲"전력공급팀장 안병태 ▲"요급관리팀장 이대선 ▲순천지사 고객지원팀장 기강호 ▲"전력공급팀장 신영선 ▲"요급관리팀장 예해근 ▲"목포지사 고객지원팀장 전영만 ▲"전력공급팀장 성영기 ▲"요급관리팀장 강보안 ▲해남지사 고객지원팀장 오호준 ▲"전력공급팀장 정창호 ▲"나주시사 고객지원팀장 라영균 ▲"전력공급팀장 장수호 ▲순천전력서 송전팀장 김호근 ▲"변전팀장 이상진 ▲강진전력서 송전팀장 정현웅 ▲"변전팀장 김경대

농어촌공 전남본부-전남대 산학협력 협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운)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동련)과 최근 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시체육회-뉴욕미래치과의원 지정병원 협약



광주시체육회(회장 강운태)는 최근 뉴욕미래치과의원(대표위원장 김은규)과 '지정병원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체육회제공>

광산경찰서 우산파출소 학교폭력 예방교육



광주 광산경찰서 우산파출소는 최근 소촌동 정광중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 11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경찰서 제공>

농협구례교육원 입소 교육생 사회봉사활동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김세종)에 입소한 농·축협 신규직원 교육생 163명은 최근 구례 노인요양원 등지에서 나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설성호(전 광주일보 총무부장)·김현숙씨 장남 민수군 김일수·지정옥씨 장녀 수진양=10일(토) 오후 1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비스 엠베서더호텔 5층 베로 나홀.

▲김형욱(전 언론인·자연환경부 대표이사)·강금연(전 유안초교 교사)씨 장남 대수군 정영진(전 운암중 교사)·김귀례(세광고회 권사)씨 2녀 지원(서울 서초초교 교사)양=10일(토) 낮 12시 호텔 무등파크 4층 컨벤션홀.

종친회

▲진주강씨 청·장년 종친회(회장 강원영) 3월 월례회=12일(월) 오후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살림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및 강사 양성교육=3월 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서구화정동) 010-6401-6127, 062-430-3539.

▲엠마우스복지관·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지역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자극증 과정, 문화체험, 여가스포츠지원사업=지역·자폐성 장애인 60명 대상. 2월부터 12월까지 062-524-7701~3.

모집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 의경 전역자들의 모임회 창립 019-277-0007.

▲포인트재활원=추나요법, 재활 상담무료, 두통, 오십성, 목, 허리, 디스크, 요통, 척추협착증, 골반통, 좌골신경통, 족부, 건장수기전단 및 치료교정. 주야대기 062-651-9030.

▲참된 나 찾기 무료학습 공부=매주 목요일 오전 11시~12시 말바우 시장 농협 3층 리플렛방산성동 호회 010-6609-9068.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www.e1391.or.kr)=전남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상담 및 보호·치료를 위한 활동과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회복을 도움.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신문화복지위원회=과도한 빛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

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등을 지원.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금남로5가 금융중심빌딩 6층·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단기계약원은 압류재산 공매물건 현찰조사 인원 모집. 자격조건은 자기차량 소유 및 운전 가능자와 업무 경험자, 14일(수) 오후 5시까지.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31-3043.

▲작악연희놀이 수강생=13일(화) 개강, 품바놀이(품바·각설이타령)·한국무용 주 1회반(화·목) 1, 주 2회반(화·목) 오전 10시~오후 2시·오후 7시 택일 062-228-4340, 010-3620-4341.

▲사랑모이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이커데미 자원봉사협의회의 자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봄·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까지 및 현금성 분석 등. 011-607-4614.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블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30세 이상 부부, 매일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총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람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

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이명옥씨 별세 정재현·재봉·명자·명순·명일·미남·화순·복순씨 모친상=발인 8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故락정성 님(남/52세) 未亡人: 김인숙 / 박주희 호실: 402호 장지: 영락공원	故신상월 님(여/84세) 子/子婦: 김일선 / 정순희 / 보선 / 박미자 女/婦: 김순원 / 박동기 / 복영 / 삼영 / 조재식 / 옥영 / 고재선 / 인영 / 박석영 호실: 301호 장지: 영락공원
故임순철 님(남/79세) 子/子婦: 임민덕 / 최순자 女/婦: 임영래 / 손덕철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차동숙 님(여/82세) 孫: 이만희, 용성 호실: 102호 장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한 **李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